



3  
태평양 지역

#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

아카츠키 타카하시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 개요

본 발표문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먼저 논한다. 우선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수립된 태평양 지역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역사와 이행 과정을 요약한다. 그리고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2010/2011년 태평양 7개국에서 열린 다자간 협의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약술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의회 구성 및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기적 전략의 수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사업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속적인 모범사례 축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 서론

태평양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타이완을 거쳐 태평양으로 항해를 시작했던 6000년전부터 아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들은 바다의 지배자였으며 별, 달, 바람, 새 그리고 해류를 관찰하며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였다. 쿡 제도와 타히티에 도착한 이들은 A.D. 1300년 이전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1500년대에 들어서자 마젤란을 비롯한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평양 항해를 시작했고 고래사냥꾼, 무역인,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따라 기독교 문화가 점차 태평양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이후 열강의 식민지 확대 경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탈식민지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독립과 국가 건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문화였다. 1962년에 사모아가 최초로 독립한 이래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독립이 이어졌고, 1994년에 팔라우가 마침내 독립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비교적 신생국가로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된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

유네스코태평양지역사무소는 사모아의 수도 아피아에 위치해 있으며 14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유네스코 준회원인 토켈라우를 담당하고 있다.

## 사회경제적 배경 - 취약성과 회복력

태평양 지역은 지구의 1/4을 차지하며 보기 드문 다양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태평양 도서국가 전체 인구는 약 9백만 명에 이르며 그 중 7백만 명은 파푸아뉴기니에 거주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1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다종다양한 언어의 본고장이다. 800개가 넘는 언어가 파푸아뉴기니의 각기 다른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바누아투에 사는 100여개의 언어가, 솔로몬제도에서는 8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도서국가 외에 태평양 지역에는 뉴질랜드령, 프랑스령, 미국령, 영국령 제도(諸島)가 포함된다. 토켈라우는 인구 1500명 미만의 뉴질랜드령 섬이다. 일부 영토에서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실시될 계획이다.

5개 도서국가(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는 ‘최빈개발도상국(LDC)’으로 불린다. 이들 도서국가와 영토들이 태평양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태평양제도포럼(PIF)은 지역 협력을 통해 태평양 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적 안녕을 꾀하고자 1971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PIF에서 채택된 '2005년 태평양 계획'은 “우리는 태평양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 지역 문화, 전통, 종교적 신념이 귀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가와 영토는 나지막한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례로 키리바시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약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태평양 공동체는 사이클론, 해일,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 산호섬 지역의 공통된 문제는 물 부족이다. 최근 투발루 정부는 심한 가뭄과 식수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투발루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 사회는 물통과 휴대용 담수화 장비를 투발루에 공수하였다.

과거 태평양 지역 사람들은 자급자족 경제 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풍족하게 살았다. 농업(코코넛, 바나나, 빵나무 열매, 타로, 양 등)과 어업은 많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통 식량의 경작은 이 지역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피지를 제외한 태평양 국가들의 수입식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안보’가 태평양의 군소 도서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태평양 지역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유의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이 회복력은 이 지역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정체성과 달리, 태평양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은 집단적이고 관계지향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족장제도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소유한 땅과 강한 정신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 이 족장제도는 지역 통치의 기반이었으며 대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과 상호 원조를 제공해왔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은 태평양 지역의 선물 증정 전통에 관한 인류학적 문헌을 익히 접해보셨을 것이다. 트로브리안드섬의 쿨라 링(Kula Ring) 교환제도, 야프섬 사람들의 돌화폐 사용, 사모아의 돛자리 교환 등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이 전통에 따라 조개 장식품, 돌화폐, 정교하게 짠 돛자리 등 귀한 물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거기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이 전통의 목적은 당장의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독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귀중품을 교환하는 이러한 선물 증정 전통은 태평양 지역 사람들 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이 관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일레로 팔라벨레(Fa'alavelaes)라고 불리는 사모아의 선물 증정 전통은 결혼식, 장례식, 작위 수여와 같은 행사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 전통은 호주, 뉴질랜드 및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사모아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아시다시피 일부 태평양 국가에서는 해외송금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자들은 해외송금 현상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선물 증정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 개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번에는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태평양 지역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하늘, 바다, 땅이라는 3가지 기둥에 빗대어 설명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하늘과 연관이 있는 유산으로 나우루에서 행해지고 있는 '군함새 사냥'이라는 독특한 전통을 들 수 있다. 바다에 대해 말하자면, 태평양 제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육지보다 면적이 6배나 더 넓다. 따라서 태평양 지역은 바다와 연계된 매우 풍부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 항해제도'와 '전통 어업지식 및 방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전설적인 마이크로네시아 항해사 마우 피아이루그(Mau Piailug)는 작년 7월 마이크로네시아의 나타왈섬에 있는 그의 집에서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피아이루그는 서양의 탐험가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태평양의 탐험가들이 사용했던 고대 항해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다. 1970년대에 그는 하와이에 근거지를 둔 폴리네시아 항해협회와 공조하여 GPS를 사용하지 않고 하와이에서 타히티까지 호쿨레아(Hokule'a)라 불리는 전통 카누를 타고 처녀항해에 성공하였다.

땅과 관련된 유산으로는 전통적인 부족 회합장소(marae)가 있다. 이곳은 태평양 제도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장소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이들 회합장소의 건축 스타일은 각 섬마다 다르지만 태평양 지역의 통치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서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통적 족장제도의 현대화를 통한 상향식 통합과 서양의 삼권분립 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래, 태평양 지역은 유산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왔다. 이러한 보존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한 태평양 국가들은 중기적 활동계획의 수립을 관례화하였다. 2009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되었던 첫 번째 활동계획에 뒤이어 현재 2010-2015년 활동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뉴질랜드 느가티 투화레토아 마오리 부족의 대추장 테 헤우헤우(Te Heuheu)를 의장으로 2007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1년 7월 현재, 태평양 도서국가 내 5개 유적지(솔로몬제도의 이스트 렌넬, 마살 군도 내 비키니 환초의 핵실험지, 파푸아뉴기니의 초기 농경지인 쿡, 바누아투의 로이 마타 추장 영지 등)과 태평양 영토 내 5개 지역(뉴칼레도니아 섬의 석호 - 다양한 산호초와 생태계, 칠레의 라파누이 국립공원, 핏케언 제도의 헨더슨 섬, 하와이 화산국립공원과 파파하나우모쿠아키아 해양국립공원)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그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태평양지역 문화유산의 특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7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의 대표들은 이 지역 유산의 뚜렷한 특징은 "천체적이고, 모든 삶을 포괄하며.....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해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식민통치와 급격한 자본경제로의 편입, 특히 기독교의 유입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는 복원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태평양 지역 문화는 전통과 현대적 체계를 창조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이러한 외부의 영향을 극복해 왔다.

2007년부터 유네스코는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지를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통가, 바누아투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4개국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였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었던 통가의 전통춤인 라칼라카와 바누아투의 모래그림은 현재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태평양 지역 당사국들은 국가 무형문화유산목록의 작성과 새로운 유산의 등재신청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필자는 2010년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태평양 국가들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협의회에는 무형문화유산 관리자, 전통부족의 족장, 비정부기구(NGO), 연구원과 공공 및 민간부문 관계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하였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공통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과 협약에 관한 유네스코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둘째 날에는 해당국가 전문가들이 자국 언어로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셋째 날에는 전략과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태평양 도서국가 7개국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협의를 진행했다. 개최 장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팔라우(2010년 2월), 사모아(2010년 5월), 쿡제도(2010년 6월), 솔로몬제도 (2010년 10월), 키리바시(2011년 2월), 나우루(2011년 5월), 마셜제도(2011년 6월)이다.

국가 차원의 협의회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으로 피지와 통가에서 두 차례의 네트워킹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은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지난달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팔라우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했다는 낭보가 발표되었다. 이로써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은 총 5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더 많은 국가들이 협약 비준을 진행하고 있다.

##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제

앞으로 유네스코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FSM), 니우에, 투발루 등 나머지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국가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기 전략 및 활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차원의 전략과 활동계획의 수립은 태평양지역이 상호협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가의 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평양예술위원회는 2012년 7월 솔로몬제도에서 열리는 제11회 태평양 지역 예술문화축제를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

태평양 지역은 꾸준히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어 왔으며, 하늘, 바다, 땅이라는 3요소와 관련된 유산들은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의 여파로 훼손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

은 더 이상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을 논의할 때는 식수부족과 식량안보의 위기라는 이 지역 현안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평양 국가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사업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성에 무형문화유산이 기여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실, 2010년 9월 열린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문화와 개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 65/166을 이끌어 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역의 식량생산제도를 무형문화유산의 일환으로 보호하게 되면 식량안보가 증진되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라는 첫 번째 목표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장'이라는 일곱 번째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과 관련 지어 보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교 교육과 세대간 전송 그리고 교회가 주도하는 사회문화적 활동이 태평양 지역에서 비공식 교육의 일환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보급을 확대하는데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 활용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양질의 교육 확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또 다른 모범 사례는 '여성능력의 고양'이라는 세 번째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태평양지역의 인증당국이 인정하고 발부하는 전통지식 및 기술(TKS) 자격증제도이다. 태평양지역 여성의 상당수는 그들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왔다. 특히 돛자리 짜기, 타파(검은색 직물) 짜기, 목각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과 졸업장이 없어 공식적인 분야에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평양지역의 인증당국은 '기술이 있으나 인증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차원의 전통지식 및 기술 등록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유아사망률 감소' 및 '산모건강 증진'에 해당하는 새천년개발목표 네 번째, 다섯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사모아 보건부의 한 직원은 내게 "사모아의 보건 서비스는 공공, 민



간, 전통 세 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었다. 사모아 정부는 2007년 보건당국이 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 산파들(TBAs)'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전통 산파들의 힘은 그들이 공동체 내 여성 위원회의 일원이라는 데서 나온다. 이들은 여성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자격증 제도 덕분에 사모아는 산모건강의 증진이라는 새천년개발목표 다섯 번째 목표 달성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여덟 번째 개발목표인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한 사례로, 항해협회와 같은 태평양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이 환경과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가까이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전통적 지도자들과 마을 대표들은 역시 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사모아에서 마타이(Matai), 마샬제도에서는 '이로이즈(Iroij)라고 불린다. 그들은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 주체로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관습법과 관행, 정부 정책과 조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키리바시의 내무부(MISA) 주관으로 열린 협의회에 키리바시의 17개 외곽도서 출신의 원로(Unimane)들이 참석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 원로들은 전통적 지도자로서 각 섬의 공동체 생활양식과 관계된 문제들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권위는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장로들이 서명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비준을 권고하는 문서였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상호학습과 존중을 통한 문화 간 역량과 기술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발전적인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 결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태평양 공동체가 무엇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태평양 군소제도가 당면한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역 문화에 뿌리를 둔 근성 내지 회복력을 바탕으로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태평양 도서국과 영토의 수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지역에서 향후 상호협력관계의 성

공 여부는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usAID (2009): Pacific Economic Survey 2009, Engaging with the World, Canberra, AusAID
- Yamamoto, M (1997): Samoan Diaspora and Ceremonial Exchange,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Contemporary Migration in Oceania: Diaspora and Network, JCAS Symposium Series No. 3, Osaka, Japan Centre for Area Studies
- UNESCO/USP (2008): Sustainable Development - A Pacific Islands Perspective, A Report on Follow up to the Mauritius 2005 Review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Apia, UNESCO
- UNESCO (2010): The Power of Culture for Development, Paris, UNESCO
- UNESCO (2010): Final Narrative Report on JFIT Project "A Series of National Consultation Meetings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ive Pacific Countries(unpublished report)"
- Pacific Islands Forum (2011): 2011 Pacific Region MDGs Tracking Reports, Suva, PIF